

원 저

早期經脈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이동호

아름다운한의원

Study on Features of the Primitive Meridian System

Dong-Ho Lee

A-Rum-Da-Un Korean Medical Clinic

Objectives: In order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meridian,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meridian theory formed. In this regard, the primitive form of meridians requires further study.

Methods: Data from the pre-Han and Han dynasties were used, as such data document primitive forms of the meridian.

Results: 1. Some of the terminology of the primitive meridians did not include symmetrical terms such as hand, foot, yin and yang; instead, terms of travel area were used.

2. In the primitive meridians, most travel from the bottom to the top.

3. The twelve meridian system had not yet been introduced into the primitive system.

4. In the primitive meridians, only a few had branches.

5. In the primitive meridians, they did not have obvious connections with the five vital organs and the six viscera.

Conclusions: Although the primitive meridian system differs from the modern, studying the primitive meridians may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modern meridians.

Key Words: Traditional medicine, meridian, ancient history of medicine

서 론

經絡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중의 하나이다. 經絡은 다른 한의학 이론처럼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다. 현재 우리들은 經絡이라고 하는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經絡의 모습이 진실로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經絡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증은 없으며, 經絡이라고 하는 체계가 세계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공인을 받은 적도 아직은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耳部經絡, 眼周圍經絡, 腹部經絡 등의 새로운 經絡체계가 연구 발표되고 있다. 즉, 현대에도 經絡이론은 계속 발전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난해한 현대의 經絡을 잘 이해하

· 접수 : 2006년 8월 21일 · 논문심사 : 2006년 8월 23일
· 채택 : 2006년 9월 2일
· 교신저자 : 이동호,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69-167
신동아쇼핑센터 2층 아름다운한의원
(Tel: 02-749-0071, Fax: 02-749-0970,
E-mail: goodhandoc@hanmail.net)
· 이 논문은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기 위해서 과거의 經絡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발전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가 현대를 잘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이기 때문인 것처럼 과거 經絡의 모습과 고대 經絡이론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經絡을 더 잘 아는 데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漢代와 漢代 이전의 자료에서 현대 經絡보다 초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 논문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자료들에서 관찰된 經絡형태를 편의상 ‘早期 經絡’으로 칭하였다. 早期 經絡에 상대되는 ‘現代 經絡’은 현재 침구학에서 사용되는 經絡형태를 지칭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각 자료들이 가진 經絡의 형태상 특징과 經絡형태가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현대 經絡체계와의 차이점을 아래에 기술하기로 한다.

본 론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經絡은 三陰三陽으로 陰陽이 공평하게 배속되고, 手三陰은 胸部에서 손으로, 手三陽은 손에서 머리로, 足三陽은 머리에서 다리, 足三陰은 다리에서 흉복부로 순행하게 되어있어 온 몸을 하나의 고리처럼 순행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필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체계가 정말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比類取像의 방법을 통하여 그렇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체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현재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迎隨補瀉로 정말 經絡의 흐름을 瀉하고 補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대표적인 經絡의 수가 督脈, 任脈을 더해서 정말로 14개인지? 手足三陰三陽이 어떻게 六臟六腑와 연결되게 되었는지 등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먼저 현대 經絡이 어떻게 발전되어 지금의 형태를 이루었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맨 먼저 漢代나 漢代 이전의 經絡관련 문헌들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早期의 문헌들로 고대인들이 經絡을 인식하고, 그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논문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대의 독립된 각 經絡관련 문헌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의 經絡체계와 비교 연구하여 經絡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논문에서 經絡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는 문헌을 찾아서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早期 經絡의 특징을 도출해보았다.

1. 고대의 經絡認識

‘經絡’에 대한 기록은 春秋戰國時代부터 발견된다. 《史記》중의 《扁鵲倉公列傳》에서는 扁鵲이 魏나라 太子의 병을 진찰하고 “若太子病, 所謂『尸蹶』者也. 夫以陽入陰中, 動胃纏緣, 中經維絡, 別下於三焦膀胱, 是以陽脈下遂, 陰脈上爭, 會氣閉而不通, 陰上而陽內行, 下內鼓而不起, 上外絕而不爲使, 上有絕陽之絡, 下有破陰之紐, 破陰絕陽色廢脈亂, 故形靜如死狀. 太子未死也. 夫以陽入陰支蘭藏者生, 以陰入陽支蘭藏者死. 凡此數事, 皆五藏蹶中之時暴作也. 良工取之, 拙者疑殆”¹⁾라고 하였는데, 문장 중에 이미 ‘經’과 ‘絡’, ‘陰脈’과 ‘陽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그 개념도 명확하였음을 볼 수 있다. 《漢書·藝文志》에서는 “醫經者, 原人血脈經絡骨髓榮衛陽表裏, 以起百病之本, 生死之分”²⁾이라고 하였는데, 孟等³⁾은 문장 안에서 “經絡”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미 ‘血脈’과 별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장들에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經絡’이라는 용어가 인체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經絡이라는 용어가 醫學에서 사용되게 되었을까? 고대인들은 인체의 생리, 병리 현상을 자연에서 추상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經絡 또한 마찬가지이다. 《管子·水地》

에서는 “水者萬物之本也”라고 하고, “人, 水也. 男女精氣而水流形”이라고 하고, “水者地之血氣, 如筋脈之通流者也”라고 하였다. 문장에서 사람이 물이라고 한 부분이나, 물이 땅의 血氣이므로 人體의 筋脈으로 血氣가 통하는 것처럼 通流한다고 한 부분은 물과 물의 흐름이라는 자연의 현상을 人體와 人體內 血氣의 흐름과 대응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論衡·祀義篇》에서 말하길 “山, 猶人之有骨節也, 水, 猶人之有血脈也. 故人食腸滿, 則骨節與血脈因以盛矣”라고 하고, 《論衡·道虛篇》에서는 “血脈之藏于身也, 猶江河之流也”라고 하였는데, 圖⁴⁾는 이러한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물과 인체의 血脈이 서로 유사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漢字訓詁學과 先秦諸家の 저술에서 인체의 血脈과 地上의 水道를 동일하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圖⁴⁾는 또한 《靈樞·癰疽》에서는 자연계와 사람의 道理가 같다고 생각하여 샘과 같은 물의 기원에서부터 점차 그 세력이 확대되어 바다까지 흘러가는 순행 개념 뿐만 아니라, 강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오는 순환의 개념 또한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呂氏春秋·季春紀》에서는 “云氣西行, 冬夏不輟, 水泉東流, 日夜不休, 上不竭, 下不滿, 小爲大, 重爲經, 園道也”⁵⁾라 하였고, 註에 말하길 “小者泉之源也. 流不止也, 集于海爲大也. 水濕而重, 升作爲云是爲輕也.”라고 하여 이미 春秋戰國時代에 자연계의 물이 비가 되고 다시 물이 되는 循環을 설명하고 있다.⁴⁾

2. 《足臂》, 《陰陽》經絡形態의 特徵

1972년 중국 長沙에서는 前漢시대의 古墓를 발굴하였다. 그 고묘 중에서 3호기에서는 상당량의 帛書, 竹簡, 木簡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는 중국의사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여러 서적이 들어있었다. 周의⁶⁾ 帛書 중 《足臂十一脈灸經》(이후에는 《足臂》라고 한다)와 《陰陽十一脈灸經》(이후에는 《陰陽》이라고 한다)이라고 하는

서적에는 經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당시의 經絡의 모습과 經絡발전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周의⁶⁾ 기술을 바탕으로 《足臂》와 《陰陽》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足臂》와 《陰陽》은 모두 11脈으로 구성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足臂》는 足脈과 臂脈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足脈은 모두 6개로 足泰陽脈, 足少陽脈, 足陽明脈, 足少陰脈, 足泰陰脈, 足卷陰脈이다. 臂脈은 모두 5개로 臂泰陰脈, 臂少陰脈, 臂泰陽脈, 臂少陽脈, 臂陽明脈이다. 《陰陽》은 脈名上으로 足脈과 手脈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足脈으로 추정되는 것 6개, 즉 鉅陽脈, 少陽脈, 陽明脈, 太陰脈, 厥陰脈, 少陰脈과 手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2개, 즉 臂鉅陰脈, 臂少陰脈과 足脈과 手脈의 확실한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면서 脈의 循行部位에 따라 命名되어 있는 肩脈, 耳脈, 齒脈의 3가지의 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설은 이러한 5개의 脈과 다른 6개의 脈의 조합은 經絡과 五臟六腑 理論이 합쳐지기 시작한 증거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足臂》와 《陰陽》의 11脈 체계 중에서 현대 經絡 체계와 비교할 때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十二經脈 중에서 心主手厥陰心包絡의 脈이다. 《足臂》에는 手厥陰心包絡과 유사한 것이 완전히 없고, 《陰陽》에는 臂少陰經이 ‘臂兩骨之間’을 지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현대 經脈의 手少陰心經과 연관되는 臂少陰經의 循行이 臂兩骨之間 즉 手厥陰心包絡의 循行부위를 지나고 있다고 한 것은 당시의 手厥陰脈의 循行과 手少陰脈의 循行이 섞여서 혼동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足臂》에서는 經脈의 명칭을 현대의 ‘經絡’이나 ‘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脈을 뜻하는 異體字를 사용하였으나 《陰陽》에서는 ‘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經’이 사용되지 않고, ‘脈’이란 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脈의 개념은 의학계에 반영되었으나, 아직 經

絡의 개념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足臂》와 《陰陽》에는 臟腑와의 확실한 연계가 보이지 않고 미약한 관계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足臂》에서는 2개의 脈이 臟腑와 관계되어 있는데, 手太陰脈은 ‘之心’, 足少陰脈은 ‘出肝’한다는 것이다. 《陰陽》은 3개 脈이 臟腑와 관계되어 있는데, 臂鉅陰脈은 ‘入心中’, 太陰脈은 ‘是胃脈也’, 少陰脈은 ‘繫於腎’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馬王堆帛書》의 시대에는 經脈이 인체의 다른 臟腑와 유기적으로 연관됨이 없이 아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음을 의미한다.

넷째, 《足臂》와 《陰陽》을 살펴보면 각 經脈의 循行이 현대의 經脈循行과 비교할 때 대단히 간단함을 볼 수 있다. 현대의 經脈은 거의 모든 經脈이 하나 이상의 分支를 내고 있다. 그러나 《陰陽》은 모든 脈이 전혀 分支를 내지 않으며, 《足臂》에서도 足泰陽脈과 足少陽脈 단지 2개의 脈만이 分支를 내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당시는 經絡學說의 골격이 형성되는 단계로 經脈들이 아주 간결한 形態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足臂》와 《陰陽》 經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소속 經脈의 循行方向이 현대의 經脈 循行方向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다. 《足臂》의 經脈은 모두 向心性 循行을 하여 四肢에서 시작해서 胸腹部나 머리에서 끝난다. 《陰陽》은 十一脈 중 “肩脈”과 “太陰脈”에서 離心性의 循行이 보이는데, “肩脈”은 《靈樞·經脈》의 “小腸手太陽脈”으로 지금의 手太陽經은 四肢 末端部에서 經脈이 起始하여 肩部로 주행하나 이곳에서는 經脈의 循行이 반대로 되어 있고, “太陰脈”은 《靈樞·經脈》의 “脾足太陰脈”으로서 그 經脈이 胃中에서 시작하여 下肢로 주행하므로 지금의 經脈이 大趾에서 시작하여 體幹으로 진입하는 것과는 역시 반대의 循行 方向을 보여준다. 기타의 經脈

은 모두 向心性의 循行을 하고 있다.

여섯째, 《足臂》와 《陰陽》뿐만 아니라 《馬王堆帛書》 전체에서 穴名이 언급된 곳이 없다. 즉 《馬王堆帛書》는 經穴 즉 점 위주의 經脈체계가 아니라 經氣가 흐르는 經脈이라고 하는 선이 전부인 체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⁶⁾

3. 《黃帝內經》의 經絡形態

《黃帝內經》은 한 시대, 한 사람에게 의해 저술된 책이 아니므로 그 안에는 정립된 한가지의 學說 대신에 여러 가지 學說이 뒤섞여 존재한다. 經脈學說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이 보이는데, 즉 經脈學說 중에서 비교적 早期의 것으로 보이는 11 經脈學說의 흔적과 그 보다는 後期의 것으로 판단되는 12 經脈學說이 뒤섞여 있는 것이 그것이다. 심지어는 《靈樞·經脈》의 十二 經脈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馬王堆帛書》의 經脈理論의 흔적을 볼 수 있으니, 《靈樞·寒熱》의 “臂陽明, 有入頰徧齒者, 名曰大迎. 下齒齧取之, 臂惡寒補之, 不惡寒瀉之. 足太陽有入頰徧齒者, 名曰角孫, 上齒齧取之, 在鼻與頰前. 方病之時, 其脈盛, 盛則瀉之, 虛則補之”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手脈에 대하여 ‘手’ 대신에 ‘臂’를 사용한 것은 《足臂》의 특징이므로 《黃帝內經》에는 아직 이러한 早期經脈의 특징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靈樞·陰陽繫日月》에서는 十干十二支 중에서 十二支를 足部の 左側과 右側의 6개 經脈에 배치하고, 十干은 손의 좌우 5개 經脈에 배속하고 있는데, 이중 오직 手厥陰脈만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陰陽繫日月』이 11 經脈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靈樞·本輸》에서는 手厥陰經脈을 제외한 각 11 經脈마다 氣의 出溜注行入에 따라 해당되는 經穴을 배당하여 五輸穴로 대표되는 經脈의 흐름이 向心性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 중에서는 手少陰經을 中衝에서 나와서 손의 中指를 따라서 勞宮으로 가고 腕의 兩筋之間을 따라서 운행한다

고 설명한 것은 바로 手厥陰經의 循行이니, 이 편에서 手厥陰經脈과 手少陰經脈이 혼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靈樞·本輸》는名稱上으로는 手厥陰經이 빠져있으나 실제로는 11經脈 체계 속에 手厥陰經이 이미 존재함으로써 11經脈 체계가 12經脈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靈樞·脈度》에서는 經脈의 個數에서는 명백한 12經脈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經脈의 循環面으로는 현대 12經脈의 체계와 같은 폐쇄순환구조가 아닌 手脈과 足脈의 陰脈과 陽脈 모두가 向心性 循行을 하고 있다.

《靈樞·經脈》의 經脈에 관한 설명은 현대 經脈學說의 기초가 된 것이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11脈이 보이지 않고 12經脈 理論이 존재한다.

《足臂》, 《陰陽》, 《靈樞·陰陽繫日月》, 《靈樞·本輸》로 대표되는 11脈 學說에는 6개 足脈, 5개 手脈만 있고 手厥陰脈은 없었다. 《靈樞·經脈》에서는 11脈에 手厥陰心包經을 추가하여 經脈學說이 手足, 陰陽, 臟腑, 表裏로 상응하는 정연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經脈을 대표하는 말로 ‘脈’ 대신에 ‘經絡’이 등장하였다. 이 이후에 매 經脈마다 존재하는 主幹과 分支 중에서 主幹은 經脈으로 分支는 絡脈으로 불리게 되었다. 둘째, 서로 독립적이었던 脈을 이어 循環하는 經脈 체계를 구성하였다. 11脈은 본래 서로 독립적이며 거의 모두가 向心性 循行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분포로는 전신을 빈틈없이 엮어 인체를 上下表裏로 연결하고 全身에 氣血營養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經絡의 生理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靈樞·經脈》에서는 1개 經脈이 추가되어 매 1개 經脈이 끝나는 곳에서 다른 1개 經脈이 시작하는 식으로 12經脈이 서로 이어져 전신을 끝없이 循環하는 閉鎖循環系統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12經脈 중 6개는 向心性의 6개는 離心性의 半向心性 方向性을 갖추게 되었고, 1개의 經脈이 1개의 臟腑와 絡屬 관계로 연결되었다. 《足

臂》나 《陰陽》의 11脈에서 經脈과 연계되어 있던 臟腑는 心, 肝, 腎, 胃 정도에 불과하였고, 분명한 絡屬 관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靈樞·經脈》에서는 五臟六腑와 새로 추가된 心包絡이라는 장기가 12經脈과 서로 연계되어 매 陽經은 1개 腑에 속하고, 1개 臟에 絡하며, 매 陰經은 1개 臟에 속하고 1개 腑에 絡함으로써 각 陰經과 陽經은 그에 연계된 臟腑와 서로 表裏관계로 밀접히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체내의 臟腑와 表部의 經脈이 서로 연관관계를 갖게 되어 인체는 안에서 밖으로 유기적인 완전한 통일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經絡學說과 臟腑學說이라는 서로 독립적인 두 學說이 하나의 큰 체계로 통일되었던 것이다.⁶⁾

《靈樞·逆順肥瘦》에서는 手三陰과 足三陽은 離心性의 循行을 手三陽과 足三陰은 向心性 循行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편에서의 經脈 체계는 《靈樞·經脈》의 經脈 循環과 같이 12脈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閉鎖循環構造이다.

이상과 같이 《黃帝內經》에서는 각 편마다 주장하는 經絡學說이 달라 혼동스러운 양상이며, 이것은 《靈樞·經脈》에서 정리 통합되어 현대 經絡체계를 이루게 된다.

4. 張家山 출토 《脈書》

1983년 말에서 1984년 초에 걸쳐 湖北 江陵 張家山에서 3개의 前漢 前期 墓가 발굴되었는데, 거기서 대량의 竹簡이 발견되었다. 그 竹簡에는 《素靈》, 《脈書》, 《引書》, 《算術書》, 《日書》, 《歷譜》, 《遺策》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⁶⁾

高大倫은 이 묘의 주인이 대략 西漢 前期 呂后 시대의 사람이거나 그 보다 후대의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⁷⁾. 이 竹簡들 중에서 醫學에 관련된 대표적인 것은 《脈書》와 《引書》이다. 특히 《脈書》에서는 古代經絡學說과 관련된 중요한 문장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脈書》에서는 아직 ‘經脈’이라는 용어 대신 ‘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것은 “凡陽脈十二, 陰脈十, 泰凡廿二脈, 共七十七病”이라고 한 것과 같이 經絡學的으로 현대의 經脈을 의미하는 것과 “左右血先出, 爲脈”이라고 하여 病理學的으로 痔疾의 일종인 脈痔를 가리킨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脈書》의 대부분의 문장은 經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문장 중에서 ‘脈’에 대해서 ‘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脈痛’에 대하여 ‘流’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당시에 이미 氣血이 소통하는 기관으로의 ‘脈’의 개념에 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脈書》에서는 陽脈이 十二個이고, 陰脈이 十個라고 하였으니 《脈書》의 經脈체계가 11脈 체계임을 알 수 있다. 또 11脈에 대해서 각 脈마다의 구체적인 循行路線과 是動病, 所生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陰陽》과 일치한다. 그러나 현재의 手少陰經을 의미하는 臂鉅陰脈 이외에 “少陰之脈, 久則強食產肉, 緩帶被髮, 大丈, 重屢而步, 久幾息則病已矣”라고 하여 따로 ‘少陰之脈’의 疾病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經脈을 의미하는 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少陰之脈’에 관련한 설명은 《足臂》나 《陰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이 이유는 《脈書》가 11脈 체계의 經脈理論이긴 하지만, 당시에 12經脈 理論이 점차 의학계에 확산되면서 이와 같이 11經脈 學說과 함께 12經脈 學說의 단서가 되는 이런 부분이 병존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張家山에서 출토된 다른 文獻인 《引書》에서는 脈에 관련된 언급은 그리 많지 않으며, ‘脈’이라고 언급된 곳에서도 ‘脈’을 經脈과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고, 인체내의 일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나 血脈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⁸⁾

5. 《武威漢代醫簡》鍼灸 관련 기술

1972년 甘肅省 武威縣의 漢墓에서는 여러 가지의 부장품과 함께 수십개에 달하는 竹簡이 발굴되

었는데, 그 중에서 鍼灸와 관련된 것은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7가지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經絡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그러나 三里와 肺俞의 위치, 刺針 깊이 留鍼 시간을 기술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른 禁灸法과 禁灸部位를 설명하고 있어서 침구학 방면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三里를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膝下 5寸으로 三分 깊이로 刺針하고, 한 되의 쌀이 익을 시간 정도를 刺針한다고 설명하였고, 肺俞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項後 제 11脊椎의 옆에 4分の 깊이로 刺針하되 숨을 백 번 쉴 정도 留鍼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經穴學에서 三里는 膝蓋骨下 3寸에 위치하며, 肺俞는 제 3胸椎下 兩旁 1.5寸에 위치하므로 당시의 經穴은 지금과 달랐음을 보여준다. 《足臂》와 《陰陽》에서는 經絡을 언급하되 經穴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武威漢代醫簡》에서는 오히려 經絡에 관한 언급보다도 經穴에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으니 《馬王堆帛書》로부터 약 200년 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竹簡에서 經穴, 經絡 방면의 변화상을 알 수 있다.

6. 《金匱要略》과 《傷寒論》 經絡理論

《金匱要略》에서 經絡에 관하여 따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몇 개의 條文中에서 당시 經絡學說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다. 《金匱要略》에서는 『血痺虛勞病篇』에서처럼 “經絡營衛氣傷 內有乾血 肌膚甲錯 兩目黯黑 緩中補虛”라고 하여 氣血을 溝通하는 기관으로서의 經絡에 관하여 ‘脈’보다 ‘經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經絡이라는 개념이 이미 의학계에 정착하였음을 보여준다. 대개 ‘脈’이라는 용어는 診斷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邪在于絡 肌膚不仁 邪在于經 卽重不勝”이라고 하고, “極寒傷經 極熱傷絡”이라고 하여 ‘經絡’이라는 용어 중에서 ‘經’과 ‘絡’의 개념이 확실히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金匱要略》에서는 疾病에 구

체적인 經穴을 사용하여 치료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婦人雜病脈證并治』에서는 “婦人中風 發熱惡寒 經水適來 得七八日 熱除脈遲 身涼和 胸脇滿 如結胸狀 讒語者 此爲熱入血室也. 當刺期門 隨其實而取之…… 陽明病 下血讒語者 此爲熱入血室 但頭汗出 當刺期門 隨其實而瀉之 澱然汗出者愈”라고 하여 期門穴을 婦人病에 사용하였다.^{9,10)}

《傷寒論》에서는 鍼灸治療와 관련하여 전체 398개의 條文 중에서 약 7.2%인 29개의 條文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중 9개의 條文에서는 針刺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언급하였고, 6개 條文에서는 針法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설명하여 당시에 《馬王堆帛書》의 灸法만을 專用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점차로 針刺를 많이 응용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¹²⁾ 그리고 針刺에도 “太陽病三日 已發汗 若吐 若下 若溫鍼 仍不解者 此爲壞病 桂枝不中與之也 觀其脈證 知犯何逆 隨證治之”라고 하여 溫鍼을 사용하고, “傷寒 脈浮 自汗出 小便數 心煩 …… 若重發汗 復加燒鍼者 四逆湯 主之.”이라고 하여 燒鍼을 사용하여 針刺方法 또한 다양해졌음을 보여준다. 穴位에 관련해서도 張家山에서 출토된 漢簡 보다도 다양해져서 “太陽病 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風府 却與桂枝湯則愈”에서 風池와 風府를 응용한 이외에 大椎, 肺俞, 肝俞, 期門, 關元 등을 언급하고 있다.¹¹⁾

7. 錦陽市 출토 木質人形

1993년 四川省의 錦陽市에 있는 西漢시대의 古墳에서 흑색으로 거둬 漆해진 木質人形이 발굴되었다. 그 인형 위에는 紅色의 漆로 經脈의 循行經路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발굴된 것 중에 가장 早期의 침구인형이다. 李學勤 教授의 고증에 의하면 이 木人은 漢의 文帝와 景帝의 시기(B.C. 179-141)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馬王堆帛書》의 매장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어서 經脈理論의 발전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¹²⁾

木人에는 모두 上下로 循行하는 19條의 主脈이 존재한다. 그 중에 木人의 신체 한가운데로 循行하는 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難經》, 《黃帝明堂經》, 《鍼灸甲乙經》 등의 서적에서 설명하고 있는 督脈의 循行路線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외에 木人에는 18개의 縱行 走行路線이 존재하는데, 이 18개는 좌우가 동일한 經脈을 모두 계산해 넣은 것으로 그 走行은 手三陰脈, 手三陽脈, 足三陽脈의 분포와 유사하다. 즉, 木人에는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10條의 經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陰陽》이나 《足臂》보다 그 수가 적으나 手太陰, 手厥陰, 手少陰의 手三陰經脈路線이 모두 존재하고, 거기에 奇經八脈 중의 하나인 督脈의 路線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이른 기록이므로 經絡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木人에 手三陰經脈의 路線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木人의 經脈 理論이 手厥陰 經脈의 路線은 존재하고 있으나 手厥陰 經脈의 脈名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陰陽》이나 手厥陰經脈路線이 완전히 배제된 《足臂》와는 다른 발전 단계를 가진 經脈理論이라는 증거가 된다.

또한 木人에는 足三陰經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馬繼興은¹²⁾ 木人의 下肢에 분포하고 있는 經脈을 살펴보면, 足陽明脈循行路線은 下肢 前面部の 正中線 주위에 분포하며, 足少陽脈 循行路線은 주로 하지 外側面에 분포하고, 足太陽脈 循行路線은 주로 下肢 後面의 正中線 주위에 분포함으로써 足三陽經脈의 循行路線 만으로도 下肢의 거의 모든 면적을 循行하는 결과가 되므로 足三陰經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였다.

다른 하나 木人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약간의 分支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木人에는 열 개의 脈이 있으나 分支가 존재하는 것은 手太陰脈의 循行路線에 2개, 手陽明脈의 循行路線에 1개, 手少陽脈의 循行路線에 1개, 足太陽脈의 循行路線에 1개로 모두 5개이다. 이는 《陰陽》에서 모든 脈이

分支를 내지 않으며, 《足臂》에서는 ‘足太陽脈’과 ‘足少陽脈’만이 分支를 내는 상황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經脈이 分支를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分支하는 經脈은 循行上의 分支가 아닌 木人 내의 다른 經脈으로 分支하는 것이어서 《足臂》, 《陰陽》의 經脈들과 같이 각자가 분리되어있는 經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經脈들끼리 서로 이어져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므로 木인에 존재하는 分支의 의미는 《足臂》, 《陰陽》의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木인에 존재하는 經脈路線의 方向性は 정확히 알 수 없다. 馬繼興은 현대 12經脈의 구조에 맞추어 木人の 經脈이 모두 離心性의 循行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¹²⁾, 필자는 당시의 다른 서적 《足臂》, 《陰陽》, 《難經》, 《黃帝內經》과 비교해 볼 때 마땅히 向心性의 循行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2經脈의 循行 순서에 비추어 보아서도 木人の 手太陰經脈路線이 手陽明經脈路線으로 分支하는 것과 足太陽經脈路線이 足少陽經脈路線으로 分支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向心性의 循行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더욱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8. 《難經》의 經脈理論

《難經》의 23難에서 29難까지는 주로 經脈에 관련된 내용으로 十二經脈, 奇經八脈, 十五絡脈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23難에서는 十二經脈의 流注와 脈長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十二經脈은 12개로 구성된 經脈體系이나 그 循行方向은 《靈樞·脈度》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두 向心性이다.

經絡學的으로 《難經》의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奇經八脈에 관한 순행, 생리, 병리를 명확히 밝혔다는데 있다. 《難經》에서는 全體 81難중 27難, 28難, 29難에서 주로 奇經八脈에 관하여 言及하였다. 이 중 27難에서는 奇經八脈의 意義와 內容

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고, 28難에서는 奇經八脈의 循環과 起止點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으며, 29難에서는 奇經八脈의 發病 證候를 다루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奇經八脈에 관한 認識은 있었으나 ‘奇經八脈’이라는 用語로 이를 표현하지는 못하였고, 奇經八脈 각각에 관하여 體系的으로 論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難經》에 와서야 비로소 ‘奇經八脈’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고, 奇經을 體系的으로 認識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³⁾

9. 現代經絡 體系에 남아있는 向心性 순행의 痕迹

1) 十五絡脈

絡脈은 經脈에서 分出되어 斜行하는 支脈이며, 거의 모두가 體表에 분포되어 있다. 주요한 것이 15개로서 十二經脈에 하나씩, 任脈, 督脈, 脾의 大絡을 합쳐서 열다섯개가 된다. 이외에도 胃의 大絡이 있어서 16絡脈이라고 稱하기도 한다. 絡脈은 十二經脈에서 다른 十二經脈으로 循行하거나, 任脈, 督脈, 脾의 大絡間의 표리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전신의 經脈을 통속한다.

絡脈의 循行에서 手三陰經의 循行을 살펴보면 手少陰과 手心主의 絡脈이 각각 心中과 心包絡으로 別走하며, 手太陰經脈의 絡脈이 手太陰肺經의 循行을 쫓아서 내려가다가 手陽明大腸經으로 別走한다. 따라서 手太陰의 絡脈을 제외하면 모두가 向心性 循行을 하고 있는 것이다. 手三陽經의 循行은 모두 陰經에 도달하도록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가 向心性 循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足三陽經의 絡脈은 足少陽經의 絡脈이 厥陰에 別走하고 足跗에 下絡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足太陽이 少陰에 別絡하고 足陽明이 手太陰에 絡하여 모두 向心性 循行을 하고서 頭頸項에 上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足三陰의 絡脈은 三陽에 別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循行 路線은 모두 向心性을 띠고 있다. 즉, 2가지 絡脈을 제외하고는 모두 向心性 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15絡脈의 循行은 《足臂》, 《陰陽》의 向心性 經脈 循行과 脈을 같이하는 것이다.

2) 十二經別

十二經脈은 인체를 순행함에 있어서 “內屬于臟腑, 外絡于支節”하는 主幹線 이외에 각經脈이 모두 體內로 深入하는 “經別”이라고 불리는 別行하는 分支를 따로 가지고 있다. 十二經別은 十二經脈의 表裏絡屬 관계를 강화하고, 十二經脈의 分포와 연계부위를 조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十二經別의 循行을 살펴보면 足三陽經別과 足三陰經別은 모두 下肢에서 시작하여 腹部, 胸部를 관통하고 頭面, 頸項部까지 도달함을 알 수 있다. 手三陽 經別과 手三陰 經別은 이와 같지 않아서 手陽明 經別은 손에서 分出하여 胸部를 지나 脊柱骨에 들어가고 喉嚨을 지나서 缺盆에 이어지고 다시 陽明에 이어지는 循行을 하며, 手太陽經別, 手少陰經別, 手太陰經別, 手厥陰經別은 肩腋部에서 분출하여 心胸部에 이어지는 循環을 한다. 手少陽經別은 頭頂部에서 分出하여 胸中에 도달하는 循環을 한다. 이것을 볼 때 十二經別은 그 모두가 손끝, 발끝에서부터 시작하여 向心하는 것과 같은 循行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經脈의 흐름이 心胸部를 향해 달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 十二經筋

十二經筋은 十二經脈의 循行부위 위에 분포된 體表筋肉系統의 총칭으로 주로 四肢, 軀幹, 胸廓, 腹腔에 분포하며 臟腑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十二經筋의 명칭은 十二經脈에 근거하며 手足의 三陰, 三陽으로 나눈다. 이 중 太陽經筋과 少陰經筋은 後面, 少陽經筋과 厥陰經筋은 側面, 陽明經筋과 太陰經筋은 前面에 분포되어있다. 陰陽으로 나누어 보면 陽은 外를 주관하며 手足三陽의 經筋은 體表의 外側에 분포된다. 陰은 內를 주관하며 手足三陰의 經筋은 肢體의 內側에 분포되고 胸廓과 腹腔으로 진입한다. 十二經筋의 주행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각자 同名의 十二經脈의 循行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十二經筋은 十二經脈과 같이 半向心性의 循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手足三陽三陰 모두 다 手足의 末端에서 起始하여 胸腹이나 頭面部로 循行하는 向心性 方向성을 가지고 있다.

4) 根結

《靈樞·根結》에서는 12經脈 중 手三陰, 手三陽을 제외한 6개 足部 經脈의 根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根結’은 經氣가 일어나고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根은 根本을 뜻하는 것으로 四肢末端의 井穴을 가리키며, 結은 結聚, 歸結을 뜻하는 말로서 그 위치는 頭胸腹部이다. 《靈樞·根結》에서는 足部 經脈의 根結 이외에도 足三陰과 手三陰을 배제한 足三陽과 手三陽의 根, 流, 注, 行, 入理論을 “足太陽根於至陰, 溜於京骨, 注於崑崙, 入於天柱飛揚也. 足少陽根於竅陰, 溜於丘墟, 注於陽輔, 入於天容光明也. 足陽明根於厲兌, 溜於衝陽, 注於下陵, 入於人迎豐隆也. 手太陽根於少澤, 溜於陽谷, 注於少海, 入於天窗支正也. 手少陽根於關衝, 溜於陽池, 注於支溝, 入於天隔外關也. 手陽明根於商陽, 溜於合谷, 注於陽谿, 入於扶突, 偏歷也. 此所謂十二經者, 盛絡皆當取之”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經氣가 생겨나서 흐르고 貫注하고 들어가는 처음과 끝을 기술한 것인데 經脈의 根이 井穴이고 入이 井穴보다 上部에 위치한 經穴이거나 頸項部에 위치한 經穴이므로 《靈樞·根結》에서 논하고 있는 이러한 經氣의 循行은 모두 向心性이라고 볼 수 있다.

5) 五輸穴

井穴은 말 그대로 지하에서 샘이 솟아오르는 모양을 형용한 것으로 그 위치는 四肢말단에 존재한다. 이것은 사람의 經脈을 물과 비교할 때 강의 起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滎은 물이 조그만 흐름을 형성한 것으로 그 위치는 手指足趾, 手掌足底部位에 있으며 人體經脈의 氣가 조금 자라서 물이 미미하게 흐르는 모양을 나타낸다. 輸는 水流 運轉通行貫注하는 것으로 그 위치는 手腕, 足踝關

節附近에 많이 있으며 經脈이 비교적 커져서 榮穴보다 經脈에 氣가 더욱 많이 흐르는 모양을 상징한다. 經穴은 물이 크게 흐르면서 긴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그 위치는 手肘, 足膝關節附近에 위치하고 있으며 人體經脈의 氣流注가 더욱 盛하여 輸穴과 비교해서 經脈氣가 더 많이 흐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습은 물이 회합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經脈氣가 모여서 큰 흐름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 위치는 肘膝關節 부근에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經穴보다 經脈氣가 더 많이 흐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五輸穴을 살펴보면 물이 샘물에서 발원하여 아주 큰 강물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처럼 經脈氣가 아주 작은 상태부터 점점 더하여져서 커지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 중 經脈氣의 시작은 손끝 발끝의 爪甲部이며, 큰 흐름을 만드는 단계는 肘膝部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흐름은 向心性 循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五輸穴에 대해서 설명한 《靈樞·本輸》에서는 心經의 脈이 中衝에서 분출하여서 勞宮, 大陵, 間使, 曲澤을 지나 循行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心經의 循行이 아닌 心包經의 循行이다. 그리고 제 五指의 末端에서 起始하여 赤白肉際를 따라 肘部로 循行하는 心經의 循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여기서 설명하는 經脈 理論에 아직 11經脈 學說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고 찰

이상에서 漢代와 漢代 이전의 문헌들을 조사하여 早期經脈의 특징을 파악한 결과 그것이 現代經脈이론과 상당부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經脈의 명칭이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陰陽》에서는 肩脈, 耳脈, 齒脈과 같이 순행부위와 관련이 있는 명칭이 사용된 經脈이 있고, 나머지 脈은 陰陽속성을 고려해 명명되었으나 손발의 표지가 있는 것은 臂鉅陰脈과 臂少陰脈

두 가지 뿐이다. 《足臂》에서는 각 經脈마다 손발의 표지는 있으나, 手脈이라는 용어 대신 ‘臂’가 사용되었다. 《陰陽》, 《足臂》, 《脈書》에서는 ‘經脈’이라는 용어 대신 ‘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靈樞·寒熱》에서도 ‘手’ 대신 ‘臂’가 사용되었다.

둘째, 早期經脈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經脈의 순행방향이 거의 대부분 向心性이라고 하는 것이다. 《足臂》, 《陰陽》에서의 脈의 循行方向은 現代經脈의 循行方向과 현저히 다르다. 《足臂》에서는 모든 脈이 向心性 循行을 하여 사지에서 시작해 胸腹部나 머리에서 끝난다. 《脈書》와 《陰陽》에서는 9개 脈이 사지에서 胸腹部나 머리로 흘러서 向心性 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肩脈과 太陰脈 등 2개 脈은 각각 귀 뒤에서 손등으로 위에서 발목 안쪽으로 흘러서 離心性 순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難經》의 경우는 23難에서 手足三陰三陽經脈의 길이와 순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向心性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奇經八脈의 순행을 언급한 28難에서 보면 帶脈을 제외하곤 모두 向心性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靈樞·脈度》를 살펴보면 經脈의 순환을 모두 向心性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經脈체계에서도 존재하는 十五絡脈, 十二經別, 十二經筋, 根結, 五輸穴 이론이 적혀있는 《靈樞·經脈》, 《靈樞·經別》, 《靈樞·經筋》, 《靈樞·根結》, 《靈樞·本輸》편을 살펴봐도 모두 그 순행방향이 向心性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經脈의 주행을 살펴보면 6개 脈은 向心性, 6개 脈은 離心性으로 循行하고 있다. 즉 손의 세 陰脈은 가슴에서 손으로, 손의 세 陽脈은 손에서 머리로, 발의 세 陽脈은 머리에서 발로, 발의 세 陰脈은 발에서 가슴으로 흐르는 것이다. 早期經脈이 이처럼 전신의 經脈이 하나의 고리처럼 순환되는 現代經脈 순환상의 특징을 가지지 못한 것은, 정말로 經脈의 순환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手足三陰三陽의 순환규율을 따르는지의 문제

와 그 經脈의 흐름에서 도출된 迎隨補瀉 등의 각종 침자법상의 특징이 실제로 임상에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여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고 하겠다.

셋째, 《足臂》, 《陰陽》, 《脈書》는 모두 11脈 체계로 기술되어 있다. 현대의 12經脈체계와 비교할 때 手厥陰心包의 脈이 빠져있는 형태이다. 四川省의 西漢時代古墳에서 발견된 木人の 經脈은 督脈과 手三陰經, 手三陽經, 足三陽經으로 되어 있는 10脈 체계이고, 督脈을 제외하고 12正經과 비교하면 9脈 체계라고 할 수도 있다. 《靈樞·陰陽繫日月》에는 十干十二支 중에서 十二支를 足部の 左側과 右側의 6經脈에 배치하고, 十干은 손의 좌우 5개 經脈에 배속하고 있는데, 이중 오직 手厥陰脈만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陰陽繫日月』이 11經脈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靈樞·本輸》에서는 手厥陰經脈을 제외한 각 11經脈마다 氣의 出溜注行入에 따라 해당되는 經穴을 배당하여 五輸穴로 대표되는 經脈의 흐름이 向心性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 중에서 手少陰經이 中衝에서 나와서 손의 中指를 따라서 勞宮으로 가고 팔의 兩筋之間을 따라서 운행한다고 한것은 바로 手厥陰經의 循行이니, 手厥陰經脈과 手少陰經脈이 혼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靈樞·本輸》는 名稱上으로는 手厥陰經이 빠져 있으나 실제로는 11經脈 체계 속에 手厥陰經이 이미 존재함으로써 11經脈 체계가 12經脈 체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의학의 많은 이론은 比類取像의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11經脈 체계가 12經脈 체계로 변화하는 데는 이 比類取像에 힘입은 바가 크다. 따라서 이상에서 논술한 것처럼 早期經絡을 언급하는 문헌에서 經脈을 10맥체계나 11맥체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2經脈체계가 정말로 經脈 열두 가지로 존

재하는지 아니면 12月, 12水, 12星辰, 12時의 경우처럼 12經脈체계가 되어야 당연하다고 보고 이렇게 성립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던져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現代經脈에서 12經脈은 모든 脈이 分枝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早期經脈을 살펴보면 經脈에 있어 分枝는 일반적이지 않다. 《陰陽》, 《脈書》에서는 모든 脈이 分支를 전혀 내지 않으며, 《足臂》에서는 ‘足太陽脈’과 ‘足少陽脈’이 각각 分支를 하나씩 낸다. 사천성에서 발굴된 木人에는 열 개의 脈이 있으나 分支가 존재하는 것은 모두 5개이다. 이는 《陰陽》이나 《足臂》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經脈이 分支를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分支하는 經脈은 循行上 갈라지는 것이 아닌 木人 내의 다른 經脈으로 分支하는 것이어서 《足臂》, 《陰陽》의 經脈들과 같이 각자가 분리되어있는 經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經脈들끼리 서로 이어져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므로 木人에 존재하는 分支의 의미는 《足臂》, 《陰陽》의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즉 現代經脈에서 한 經脈과 다른 經脈이 이어져서 하나의 거대한 폐쇄순환구조를 가지는 經絡체계로 발전하는 과도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經脈에서 分枝의 의미는 단순히 經脈이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 외에도, 각 經脈간에 서로 이어져서 인체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핵심이론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分枝는 經脈간의 표리관계를 성립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하지만 위에서 논술한 문헌에서는 分枝에 관한 언급이 많지 않다. 이는 早期經脈 간에는 서로 확고한 표리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연관관계조차도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十二經脈간의 표리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표리관계를 이용한 原絡針法 등의 각종 針刺法에 관한 실제 임상상의 타당성 연구가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足臂》에서는 2개 脈이 臟腑와 연계되어 있는데, 手太陰脈은 心으로 가고, 足少陰脈은 “肝으로 나온다”고 하였다. 《陰陽》에서는 3개 脈이 臟腑와 연계되어 있는데, 臂鉅陰脈은 “心으로 들어가고”, 太陰脈은 “胃의 脈이며”, 少陰脈은 “腎에 이어져 있다”고 하였다. 즉 각 經脈과 장부의 연관이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現代經脈에서는 12經脈 모두가 각각 하나의 장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즉, 고대에는 經脈과 臟腑가 명확히 연관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현대 經脈체계에서 사용하는 經脈과 臟腑의 연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필자가 제기하였던 문제는 한의학에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經脈이론이 고대 經脈이론에는 뚜렷하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 중에는 필자도 역시 임상 도중에 그 효과를 느끼고, 존재할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현대과학이나 서양의학과 빈번하게 접하고 충돌하는 지금에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한의학 이론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전지전능한 신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고 한의학의 면면한 발전과정 속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經脈체계도 마찬가지로 早期經脈과 현대 經脈 이론이 거의 성립된 《靈樞·經脈》 시대의 그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필자는 經脈이론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陰陽五行을 중심으로 한 규칙적이고 잘 정돈된 經脈이론이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질병이나 발전하고 있는 서양의학과 잘 부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한의학을 비판할 때 잘 드는 예가 《東醫寶鑑》에서 기술한 머리카락을 먹으면 그것이 蟲으로 변한다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한의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거짓임을 안다. 하지만 《東

醫寶鑑》 시대에는 보편타당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지도 모른다. 필자는 經脈이론에 대해 부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다. 필자도 한의사로서 經脈이 실재함을 믿고, 또 임상에서 예전부터 전해져왔던 이론대로 시술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제 우리는 經脈을 이제까지 믿고 알아온 經脈이 아니고 실재하는 經脈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漢代나 漢代 이전의 經脈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早期經脈의 명칭은 現代經脈처럼 手足陰陽으로 대칭되는 모습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순행부위로 經脈의 이름을 삼는 형태가 아직 남아있다.
2. 早期經脈은 순행방향이 向心性을 띤 것이 많다.
3. 早期經脈은 아직 12經脈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4. 早期經脈은 分枝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5. 早期經脈은 臟腑와의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참고문헌

1. 司馬遷, 史記列傳(中), 1版, 서울: 까치, 2000: 693p.
2. 班固, 漢書藝文志, 1版, 서울: 自由文庫, 1995: 308p.
3. 孟競璧, 田嘉禾, 十四經脈顯像探秘, 1版,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8: 2p.
4. 圖婭, 論天驗人, 1版,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7: 105p
5. 呂不韋著, 金槿譯註, 呂氏春秋(上), 1版, 서울:

- 民音社. 1995: 154p. 642p.
6. 周一謨著. 金南一. 印昌植 共譯. 古代中國醫學의 再發見. 1版. 서울: 法人文化社. 2000: 13-79pp.
 7. 高大倫. 張家山漢簡《脈書》研究. 1版. 成都: 巴蜀書社. 1995: 117-128pp.
 8. 高大倫. 張家山漢簡《引書》研究. 1版. 成都: 巴蜀書社. 1995: 186-191pp.
 9. 王德深. 鍼灸文獻提要. 1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3-15pp.
 10. 張仲景著. 李克光主編. 金匱要略. 1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593p.
 11. 張仲景著. 王琦主編. 傷寒論講解. 1版. 新鄉: 河南科技出版社. 1988: 31p. 38p.
 12. 馬繼興. 雙包山漢墓出土的鍼灸經脈木漆人形. 文物. 1996; 4期: 65p.
 13. 李東鎬. 奇經八脈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7: 12-14pp.